

# 간호윤리 5주

가천대학교  
이여진

# IV. 생명윤리의 원칙 (p103)

- Beuchamp & Childless가 제안
  - 자율성존중 원칙 : 칸트의 도덕론(윤리론)
  - 악행금지의 원칙 : 자연법
  - 선행의 원칙 : 공리주의 도덕론
  - 정의의 원칙 : 롤스의 정의론
- 의료현장에서 이러한 4가지 원칙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각각의 가치를 지닌 채 충돌하여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
- 4가지 도덕이론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4가지 원칙들간의 충돌(상충)은
  - 곧, 이 원칙들이 바탕으로 두고 있는 도덕이론 간의 충돌!
  - 그러므로 윤리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

# 자율성 존중의 원칙 (p103)

-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 자율성이란 인간의 의사결정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며,
  - 인간의 자기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란 인간이 자신의 자율성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율적인 자기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윤리원칙이다.

# 자율성존중의 원칙

-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사전설명 동의서)
  - 대상자의 의사소통, 이해력, 자발성, 능력 등을 조건으로 하며, 대상자에게 중요한 사실과 해석, 전문인의 충고와 동의가 갖는 권한위임 등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ex) 의사는 치료하기 전에 환자에게 치료과정과 방법, 필요한 약품의 효능과 부작용 등을 거짓없이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는 자신의 자발적 선택과 충분한 설명에 근거하여 치료에 동의해야 한다.

# 자율성존중의 원칙

- 자율적 의사표현이 안 될 경우
  - 대리인의 동의(=대리결정)
    - “과연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 생전 유언
- 강제 의료가 정당화 되는 경우
  - 환자의 결정능력 손상
  - 치료효과가 긍정적일 것이라는 명확한 예견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을 회복했을 때 강제의료를 수용할 것이라는 확신
  - 다른 대안적 방법이 없을 경우

# 악행금지의 원칙 (p104)

-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 악행금지(무해성)의 원칙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히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중효과의 원칙
  - 의료행위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곤란한 상황 중에 하나는, 계획한 행위가 두 가지 효과, 즉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쁜 결과를 낳는 경우이다. 전자는 합법적이고 우리가 의도하는 결과이지만, 후자는 해악이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결과이나, 전자와 분리할 수 없는 결과이다.
  - 그렇다면, 선을 얻기 위해 악을 용납해야 하는가?

# 악행금지의 원칙

- 이중효과 원칙의 충족 조건
  - 행위 자체가 선해야 하고 적어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 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geq$  예측되는 해로운 영향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 행위자의 의도가 유익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고, 같이 나타나는 손상의 효과는 가능한 한 피하려는 것으로 단지 허용되거나 용납되는 것이지 의도되는 것은 아니다.
  - 손상의 효과와 유익한 효과 간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 즉, 선과 악을 계산할 경우 선이 악을 능가해야 한다.

# 선행의 원칙 (p105)

-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 선행이란 친절한 행위, 동정적 행위, 이타주의적 행위 등을 말함
  - 선행의 원칙이란 타인의 선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윤리원칙으로서,
    - 타인에게 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는 소극적인 의무
    - 타인을 도와주어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
  - 선행의 원칙은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정도의 악행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 해악의 예방 및 제거와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



# 선행의 원칙

- **선의의 간섭주의(=paternalism, 온정적 간섭주의)**
  - 부모가 자식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자식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행하도록 간섭하는 것을 말한다.
  - 결정에 대한 피간섭자의 선호나 동의를 무시, 기피  
(강요, 기만, 거짓말, 정보조작, 정보의 비공개)
  -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선을 실행하기 위해서 환자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이득과 손실의 균형을 요구

(ex) 보라매 병원 사건 : '강한 온정적 간섭주의가 필요했다'

(ex) 환자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위해 억지로 운동을 시키는 경우, 의료진의 선행의 원칙은 충족되나 환자의 자율성의 원칙이 손상됨

# 정의의 원칙 (p108)

- The principle of **Justice**
  - 정의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 **공정성**, 평등.
  - (생명윤리에서) 정의의 원칙은 **공평한 분배**에 대한 윤리적 원칙이다.
  - 의료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환자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어떻게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가?
- **분배의 종류(기준)**
  - **평등**에 따른 분배 : 사회제도(국민 기본권), 청소당번
  - **필요**에 따른 분배 : 남녀 공중화장실 공간 배분
  - **공적**(공과, 성과, 업적, 노력, 능력)에 따른 분배 : 승진, 대학입학
  - **사회적 약자보호**에 따른 분배 : 차등의 원칙
  - 그 외 : 사회적 기여, 희생에 따른 분배

# 윤리규칙 (p106)

- 윤리규칙(Ethical rules)
  - 정직의 규칙
  - 신의의 규칙
  - 성실의 규칙
- 윤리원칙의 하위개념으로, 한 가지 윤리원칙에서 여러 가지 하부규칙들이 나올 수 있다.

# 정직의 규칙

- Veracity rule
  - 정직은 선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이다.
  -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윤리원칙(악행금지, 선행, 정의), 윤리규칙(성실)과 관련
- 정직과 관련된 윤리문제
  - 환자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
  - 자신 및 동료의 과오를 묵인
  - Placebo사용
  - 병원의 불합리한 체제 및 제도를 묵인
  - 환자의 동의 없이 연구의 대상으로 이용

# 신의의 규칙

- Confidentiality rule
  - 환자의 의료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
  - 간호사의 법적 의무 (=비밀유지의무)
- 신의와 관련된 윤리문제
  - 말기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문제
  - 법적으로 저촉되는 환자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밀유지
  - 도덕적으로 저촉되는 환자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밀유지
  - 환자의 자살의도에 대한 비밀유지

# 성실의 규칙

- Fidelity rule

-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칙(=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 약속이행의 의지)
- 간호사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말한다.
- 간호업무표준은 간호사가 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 계약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원칙
- 자율성 원칙과 개인의 인격적 독자성으로부터 기인되는 도덕적 법

# 간호윤리 상황극

- 놀고먹고 땡! 아 좋아 너무 좋아!
  - 간호사로서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간호사 개인의 욕구와 전문인으로서 책임에 대한 관점의 차이, 세대 차이를 보여준다.
- 간호사의 근무지
  - 일반병동 : 내과, 외과, 소아과
  - 특수병동 : 정신과, 분만실, 신생아실 등
  - 특수업무 부서 :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등

# 참고문헌

- 정면숙 외 (2012). 간호학개론. 서울 : 현문사
- 강익화 외 (2008). 간호학개론. 서울 : 수문사
- 장금성 외 (2011). 간호윤리학과 전문직. 서울: 현문사
- 병원간호사회 (2011). 간호윤리상황극.  
<http://www.khna.or.kr/web/notice/vod.php>